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오는 20~24일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오송제편백나무숲 등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소리축제 현장.

▶ 전주세계소리축제 20일 개막

대중성 · 예술성, 동시에 아우른다

개막공연에 소리꾼 박애리 등 국내의 아티스트들 대거 출연 '판소리 VR', 새 서비스로 첫 선 폐막공연 '골든 마우스 쇼' 젊은 세대 위한 장르음악 선배

전주세계소리축제에는 '소리'는 ~이러리라 해야 한다'는 틀이 없다.

축제는 매년 새로운 시도와 실험으로 소리의 경계를 허물며, 판소리를 비롯해 우리음악의 스펙트럼을 확장해 오고 있다.

오는 20~24일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오송제편백나무숲 등지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2017전주세계소리축제. 올해는 '때깔 나는 소리(Color of Sori)'를 주제로, 전통을 최대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로 승화시켜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축제는 공연과 현대적 미디어와의 접목, 지역의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다채로운 무대, 국내외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콜라보레이션 등 170여회의 공연을 갖기 다른 장르의 시각으로 소리를 풀어낸다.

2017전주세계소리축제의 막을 여는 개막공연은 소리꾼 박애리·정보권·박현정을 비롯해 가수 변진섭·한영애, 그리스·중국·몽골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13세기 마르코폴로의 모험을 동서양음악의 조우로 표현하고 있는 '엔 호르데스', 무용가 최선·장인숙 등 국내외의 다채로운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우리전통음악의 화려한 변신을 꾀한다. 이번 개막공연은 전주 KBS 생방송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판소리다섯바탕'은 도내 미술작가들의 작품 등을 대형 스크린으로 옮겨 판소리 사설과의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판소리 감상법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이는 일명 '판소리 VR'은 판소리 공연이 낯선 관객들을 위한 무대, VR시스템을 이용해 현장에서 판소리 공연을 보는 듯한 실감나는 영상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아티스트와 문화예술 인프라의 결합도 눈에 띄는 점이다. 도을 김용욱 대본·원작, 박범훈 작곡, 류기형 연출, 왕기석 명창 등 별들이 참여한 대형 창무극 '천령'이 놀이마당 무대에 오른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한 뼘 자라게 할 미디

어체합전시 '공작공작 알록달록 그래, 나는 미술이다'는 미디어와 현대미술의 접목을 시도한 다채로운 작품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 풀어놓는다.

축제는 라인업의 면면도 화려하다.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폐막공연 '골든 마우스 쇼'는 허클베리피, 춘자, 소찬휘, 히든싱어, 옥동자와 비트파이터가 출연해 랩, 합창, 비트박스 등 젊은 세대들을 위한 다채로운 장르로 소리의 매력을 안겨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광대의 노래, 고집(鼓集)'은 북의 새로운 발견에 나선다. 북 고수들이 펼치는 신기가 가까운 연주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더블비'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선 음악의 공통점 혹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 등을 비교 감상할 수 무대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전위예술가 출신자의 '아리리리 아리리리'도 마니아 관객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리스·몽골·이란·이탈리아 음악인들로 구성된 '마르코폴로의 음악여행'은 13세기 동서양을 넘나들며 지나간 항해에 나섰던 마르코폴로의 행적을 관촬하며, 동서양의 음악이 조우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담아 낼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택시운전사' 장훈 감독과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

마한교육문화회관, 29일 '함께 살아가는 영화감독과의 대화'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휘)은 독서의 달을 맞아 '책과 영화 그리고 음악'이라는 주제로 장훈 감독, 전찬일 평론가, 백가흠, 신귀백 작가의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

지난 13일에는 익산 출신 백가흠 작가의 소설

속에서 있는 익산의 서정과 서사 이야기로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일 오후 6시 30분에는 신귀백 평론가를 초청해 익산의 영화와 문화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29일 오후 6시 30분에는 '함께 살아가

는 영화감독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택시운전사' 장훈 감독을 초청하여 영화평론가 전찬일과 함께 영화 그 너머의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퓨전음악가 신은주의 음악공연도 함께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가을 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 할 것으로 보인다.

마한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독서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책임'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상영작 공개

브래드 피트 주연 '잃어버린 도시 Z'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브래드 피트의 'Z프로젝트' 두 번째 작품 '잃어버린 도시 Z'를 오는 21일 개봉·상영한다.

'잃어버린 도시 Z'는 브래드 피트를 수장으로 하는 제작사 플랜B가 월드위Z에 이어 Z프로젝트의 두 번째 작품이다.

영화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퍼즐이자 미지의 세계 Z에 도전한 최초의 인간과 시대를 앞서간 천재 탐험가의 20세기 최대 탐험 미스터리를 그렸다.

동명의 원작 '잃어버린 도시 Z: 아마존의 치명적인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화했으며, 20세기 가장 유명한 극지 탐험가 퍼시 포셋을 추적한 실화 이야기이다. 아서 코난 도일의 '잃어버린 세계'와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모태가 된 퍼시 포셋이 아마존을 탐험하며 겪



게 되는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해 화제를 모은다.

또한 감독 제임스 그레이와 배우 찰리 허냄, 톰 폴랜드, 시에나 밀러, 로버트 패틴슨까지 할리우드 내로라하는 톱스타들이 총출동해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어진박물관, '태조어진 과거시험' 등 참가자 22일까지 모집

전주어진박물관(관장 이동희)은 오는 30일~내달 1일 이틀간 경기전에서 열리는 '태조어진 과거시험' 및 '경기전 미션릴레이' 참가자를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생생문화재사업 '태조어진본인축제'의 하나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태조어진 과거시험' '도전 장원급제'는 서바이벌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박물관 프락에서 한차례 개최된다. 시험문제로는 태조어진, 경기전, 조경묘, 조경단, 오목대, 이목대 등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의 역사문화가 출제된다.

장원 급제자에게는 과거시험 합격증서인 홍패와 함께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급제자 발표 후에는 여사화를 뜻한 장원을 필두로 모든 응시자들이 참여하

여 홍패와 함께 경기전을 한바퀴 돌아보는 축하행렬이 이어진다.

또한 경기전 미션릴레이 '경기전을 지켜라'는 참봉, 금화, 수복 등 경기전 관리들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 주말 이틀에 걸쳐 오전 10시30분과 오후 1시30분 총 4회 진행된다. 매회 3팀의 가족이 퀴즈풀기와 미션수행을 통해 열전을 모으는 대결 방식으로, 모든 미션을 수행한 가족에게는 참여임명장을 수여한다. 열전을 가장 많이 모은 가족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태조어진 과거시험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5천원.

경기전 미션릴레이는 초등학교생 등 12가구를 모집하며, 참가비는 가족 당 1만원. 참가신청은 어진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문을 열고 엿듣다'

무주 최북미술관, 선환두 초대전

무주군은 최북미술관 초대전 '선환두 여섯 번째 문 열고 엿듣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최북미술관 2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화가 선환두 선생이 전통한국의 문살을 기본으로 표현한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선환두 선생(61)은 "지금껏 거의 사라진 전통문살 너머로 보이고 들리는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문살을 기본소재로 해서 그와 어울리는 혼합 재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색다른 느낌을 받으며 세월을 품은 다양한 추억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에서 태어난 선환두 선생은 청주신흥고등학교 미술교사로 현재 재직 중이며 충청북도 미술대전 한국화 부



문 대상을 수상(2017)한 것으로 비롯해 개인전과 초대전, 그룹전, 공모전 등 220여회에 걸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북미술관(제1공공미술관)은 무주읍 전통공예 문화촌 내에 위치(무주읍 최북로 15 / 063-320-5636)해있으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관람(월요일 휴관)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대표 이영근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